



〈5부〉 '귀어' 꿈을 이룬 사람들

여성수산인 진도 이정숙씨

“수도권 직장 버리고 바다에 새 인생 띄웠어요”



이정숙씨가 진도군 진도를 수유리 앞 바다 양식장에서 참모자반의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젊은 여성의 몸으로 어촌에 정착한 이씨는 해조류와 전복 가두리 양식으로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진도군 진도를 수유리는 진도읍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에 있다. 주변에 청룡마을 개매기체험장이 있고 1984년 진도대학교 개통전까지 진도의 관문이었던 쉬미항이 자리잡고 있다. 이정숙(여·41)씨의 삶터가 있는 곳이다.

이씨의 집은 바닷가 바로 옆에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전복 치패를 키우는 수조가 있고, 마당에는 전복 종패를 붙이는 양식관과 그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씨의 집안에 들어서자 농구공 크기의 주황색 부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상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성한 몸 한 목숨 있는 힘껏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루에 1만원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물 먹고 밥 먹고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입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표에 검정 매직펜으로 쓰인 글씨가 이씨의 각오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하다. 2008년 2월 형부의 권유로 친척이라고는 언니밖에 없는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가슴에 새긴 약속이다.

전주에 고향인 이씨는 진도에 오기전까지 인천에서 살았다. 회사원으로 가정도 꾸렸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새로운 정착지를 고민할 때 30년 양식업에 종사한 형부 김승환(55)씨가 진도로 불렀다. 이전에도 가끔씩 들러 바닷일을 도왔는데 인부들의 일하는 모습이 탐탁하지 않을 정도로 바닷일이 적성에 맞았고 좋았다.

형부의 양식업을 도우면서 자신감을 얻은 이씨는 2010년부터 해조

형부 일 돕다 해조류 양식하며 독립

미역→다시마→참모자반 순차 생산

귀어 4년차 울 1억원대 순수익 기대

류 양식을 시작했다. 마을앞 바다와 ‘작도도’ 사이에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곰피(쇠미역)·다시마→참모자반을 순차적으로 생산하는 3도작 방식을 채택해 연중 소득이 끊기지 않게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옥주골수산’이란 별도 법인을 만들어 형부로부터 독립체제를 갖췄다. 올해 들어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돼 귀어창업자금 2억원의 장기 저리 융자금을 받아 전복 가두리 양식도 시작했다. 가두리 양식장 규모는 200칸으로, 현재 1칸(가로×세로 2.2m)에는 2~3cm의 치패 3만5000여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3~4년 후 성패로 출하할 때면 1칸에 100만원의 순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씨가 해조류를 먼저 기르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해조류 자체로도 수익이 쓸쓸하

게 발생하고 있다. 곰피와 참모자반은 정부와 지자체의 ‘바다숲(해중림)’ 육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생산량의 90% 이상이 팔려나가고 있다. 참모자반은 경상도 지역에서 식용 수요도 많아 주문량을 맞추지 못할 만큼 인기다.

참모자반의 경우 포자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붙여야 하는 등 일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원가가 적어 수익률이 높다. 이씨는 올해 참모자반에서 9000만원, 곰피에서 42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라벤’과 ‘덴빈’ 등 릴레이 태풍 피해도 거의 보지 않아 참모자반 출하 가격이 1줄(100m)에 100만원 하던 것이 130만원으로 30% 올랐다.

그의 꿈을 대표하는 양식 어업인이 되는 것이다. 법인 이름을 진도의 옛 지명인 ‘옥주골’로 정한 데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대에 간 큰 아들과 고교 1학년생인 둘째 아들도 든든한 후원군이 되고 있다. 해양관련 대학에 진학해 자신을 돕겠다는 둘째 아들을 볼 때면 새벽 5시에 일어나 해질때까지 쉬틈없이 일해도 힘든 줄을 모른다고 말했다.

“진도에 잘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바다가 좋고 지금처럼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부표에 새긴 글귀처럼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약속, 1만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씨의 생활 태도에서 어머니의 끈기와 젊은 여성 수산경영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귀어가 급증

수익성 높은 완도, 전체 60% 차지

전남 해마다 늘어 지난해 177가구

전남이 귀농 1번지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전남지역 어촌에서 새로운 터전을 찾는 귀어(歸漁)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7가구 129명이던 귀어는 2010년 87가구에 208명, 2011년 177가구에 380명으로 인구 기준으로 해마다 85%와 103%씩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귀어가(311가구)의 시군별 비중을 보면 완도가 185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5%를 차지했다. 이어 진도(8%), 고흥(7.7%), 신안(6%), 강진(5%), 여수(4%) 순으로 집계됐다. 완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전복이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전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완도에 귀어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30대 28%, 50대 25%, 60대 9%, 20대 5% 순이었다. 귀어들이 종사하는 어업분야는 해조양식이 39%로 1위를 차지했고 패류양식(32%), 어선어업(14%), 어류양식(3%)이 뒤를 이었다.

귀어전 직업은 자영업(33%), 생산직(21%), 사무직(14%), 건설직(9%), 영업직(4%) 순으로 많았다. 귀어전 거주지역은 서울(24%), 경기(24%) 등 수도권이 48%로 절반에 가까웠고 광주(19%), 인천(8%), 부산(7%), 경남(3%), 충남(2%) 순이었다.

귀어가 늘어나면서 어촌정착 자금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을 통해 어촌정착 자금을 이용한 사람은 2010년 33명에 26억8200만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25명에 24억1300만원에서 올해는 8월 현재 37명에 57억3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어촌정착 자금은 창업자금의 경우 2억원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은 4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3%에 5년 거주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정착자금 지원외에 36명의 전남 공무원들이 전복 등 7개 품목에 걸쳐 종묘생산과 어병관리 등을 수시로 방문 지도하고 있는 것도 귀어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 완도군도로

북고당 한약방

새우리병원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